내 마음 밝히지 못하는데 학문을 해서 어찌할 것인가

<53> 거사전의 찬술자 팽제청(彭際淸)거사

설가삼과의 끊임없는 논의가 불교숭상의 시작
거사불교 부흥 위해 유학자들에 관심 일으켜

그림 · 김홍인

청대(淸代)는 명대(明代)보다도 더욱 철저하게 불교를 통제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또, 청 황실은 불교에 비교적 깊은 신심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장경(龍藏)을 편찬했던 건륭제 이후 황제들이 불교를 배척하자 불교는 완전히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불교가 가장 쇠락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청대라고 할 만큼 불교는 명색만 남았다. 더욱이 청대에 들어서면서 명대 4대 고승 같은 두각을 나타내는 승려도 출현하지 않았다. 재가신도와 출가자의 관계를 끊게 하는 정책으로 청 중기 이후에는 승가는 심각한 타락을 겪게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교를 유지시켰던 것은 유가(儒家)적 학식을 가진 사대부들이었다. 일부 학자들은 승가의 쇠퇴가 거사불교의 발흥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청대 거사들의 활동은 명대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팽제청 거사의 <거사전> 권51부터 청대에 활동한 거사들의 전기가 실려 있다. 명대에 80여 거사의 전기가 수록된 것에 비해 청대에는 25명의 거사만이 게재돼 있다. 이 또한 팽제청 거사가 청대에 활동했던 것을 감안하고, 그 거사들 가운데 상당수가 팽제청 거사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결코 많은 수가 아니다. 하지만 청대에 중국불교의 명맥을 이어줬던 것이 바로 거사들의 활동이었다.

대표적인 거사가 <거사전>의 찬술자인 팽제청(1740~1796) 거사이다.

거사는 자가 윤초(允初), 본명이 소승(紹升)이며, '제청'은 법명이다. 호는 '이림거사(二林居士)', '지귀자(知歸子)'이다. 대대로 유학으로 명망있던 집안 출신이다. 조부인 팽정구(彭定求)는 강희(康熙) 15년에 장원으로 급제해 국자감 사업(司業)을 역임했다. 부친 팽계풍(彭啟豐)은 옹정(擁正) 5년에 장원급제해 병부상서(兵部尙書)를 지냈다. 거사 역시 어려서부터 총명해 16세에 제생(諸生)에 발탁됐고, 이듬해 향시에 합격했으며 건륭(乾隆) 26년(1761) 진사가 돼 관직을 내렸지만 사양했다.

거사는 본래 세상을 구하려는 큰 뜻을 품고 이학(理學)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문득 "내가 내 마음도 밝히지 못하니, 학문을 해서 어찌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도교에 귀의했다. 3년간 열심히 수련했으나 아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우연히 불교전적을 읽고서, 마음에 계합해 "도가 돌아오는 곳이 바로 여기구나!"라고 감탄하고는 불교에 입문했다.(<정토성현록속편(淨土聖賢錄續編)> 권2) 팽 거사가 직접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는 계기를 만든 이는 같은 고향 출신인 설가삼(薛家三)이었다. 거사는 설가삼의 행장(行狀)에서 "나는 처음에 불교를 알지 못했다. 가삼은 자주 나에게 불교에 대해 논했다. 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와 그대는 유방(游方)의 안에 있는 사람인데, 어찌 부처를 섬기는가?'라고 하자 가삼은 '그대는 스스로는 불교 밖에 있으려 하면서 불교의 밖이 없음을 알지 못하는가? 그대는 더욱이 어찌하여 안이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라고 썼다. 팽거사는 설가삼과 끊임없는 논의 끝에 불교를 숭상하는 마음이 시작됐다고 서술했다.(<호해문집(湖海文集)>권60)

거사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라유고(羅有高)와 왕진(汪縉) 등과 함께 불법을 연구했다. 이들 역시 청대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거사들이다. 근대에 장지동(張之洞)은 이들 "3인은 모두 이학가(理學家)이지만 불전(佛典)도 아울러 통했다. 이들은 이학의 별파(別派)가 됐다"(<서문답목(書問答目)>)라고 평가했고, 당시에는 이들을 '불학삼사(佛學三師)'로 칭했다.

거사가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양명학과 관계가 깊은 진가(眞可)의 <자백전서(紫白全書)>를 읽고 정식으로 불교에 귀의했다. 이후, 운서주굉, 감산덕청, 우익지욱 등 명대 사대고승의 저술을 모두 읽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굉 선사의 '정토법문'에 깊이 매료돼 자호를 '지귀자'로 지었다. 얼마 후에 거사는 소주(蘇州) 화장암(華藏庵) 문학실정(聞學實定) 선사에게서 보살계를 받고, 법명을 '제청'이라 했다. 그 후 팽 거사는 계율을 엄격하게 지키며 고기와 술을 끊고서 극히 검소하게 생활했다. 또 유학자들의 불교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일승결의론(一乘決疑論)>을 찬술해 유학자의 몽매함을 일깨우고, 불교와 유학의 조화를 주장했다.

팽거사는 효심도 지극해 모친상을 당해서는 3년간 빈소에서 거주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염불도량를 세워 부친의 왕생정토를 위해 <화엄경> 10부, <아미타경> 1000부, <금강경> 1000부를 송경했고 불호(佛號)를 1000만 번 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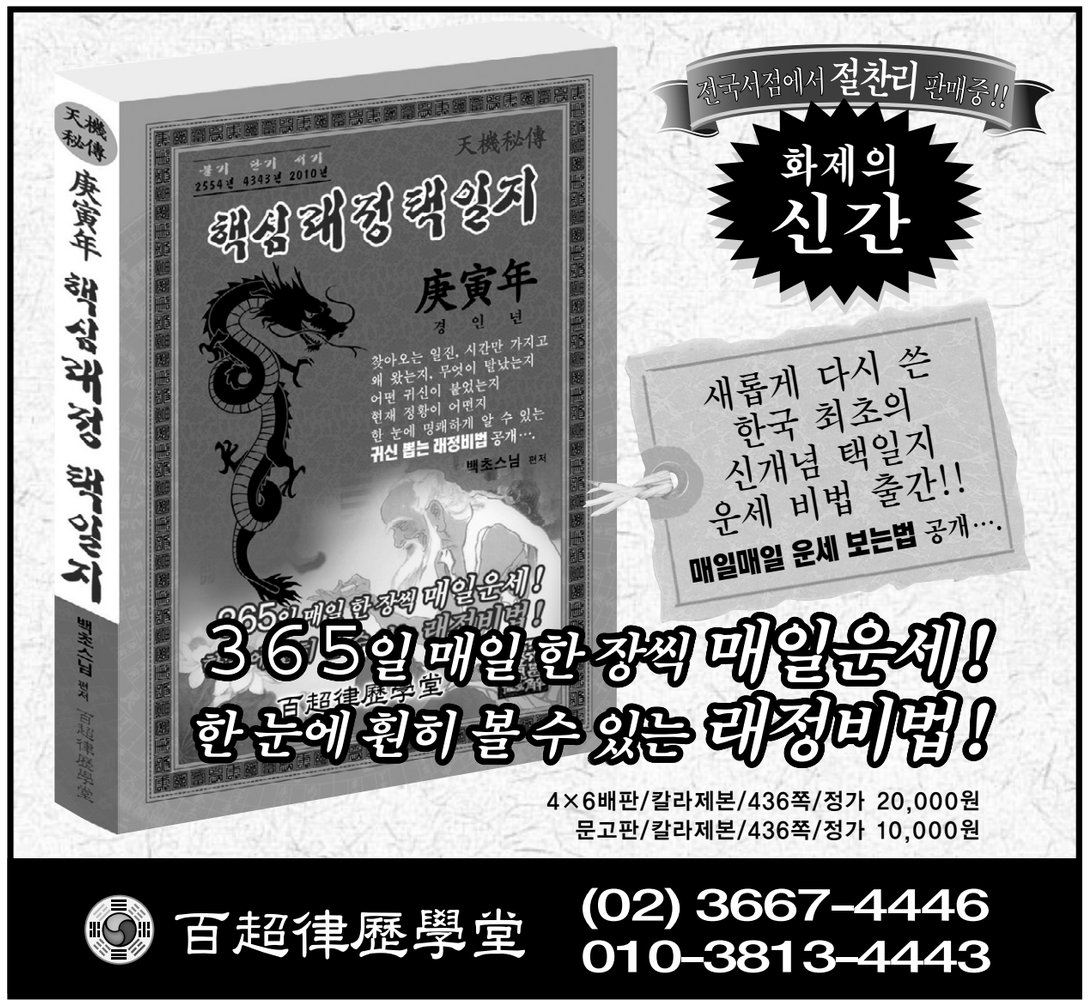
만년에 팽거사는 항주(杭州) 무림문(武林門) 밖에 문성각(文星閣)에서 폐관(閉關)해 오로지 수행과 저술에만 매진했다. 특히 거사는 '일행삼매(一行三昧)'의 수행에 전념했으며, 거사가 머무는 곳을 '일행거(一行居)'라고 했다.

팽거사는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앞에서 언급한 <일승결의론> 외에 유가와 불교를 회통할 의도로 찬술한 <화엄염불삼매론(華嚴念佛三昧論)>, 선과 정토의 쟁론을 해석한 <정토삼경신론(淨土三經新論)>과 <행거집(行居集)>, <이림거제의(二林居制義)>, <화석이현친왕윤상전(和碩怡賢親王允祥傳)> 등이 있다. 또, 본 연재를 진행하면서 항상 참조했던 <거사전>과 <선여인전(善女人傳)>이 있다. 흥미로운 것은 거사가 <거사전>을 찬술하면서 최후의 56권 말미에 <지귀자전>이라는 제목으로 스스로의 전기를 수록했다는 점이다. 거사는 <지귀자전>을 통해 어려서 유학으로부터 도교를 거쳐 불교에 귀의한 과정을 적었다. "서방에 무량수불께서 대광명을 놓아 오탁중생을 접인해 왕생정토하게 한다고 들었으니, 어찌 바라지 않겠는가! 매일 서방을 향해 배례한다"라는 대목은 거사의 정토에 관한 염원을 짐작하게 한다. <발문>에는 이 저작이 바로 유학과 불교를 융합시키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부분에는 당시의 승가가 쇠퇴하고 유학 천하인 시대상황에서 유학자들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거사불교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바람이 엿보인다.

거사는 단순히 불교에 대한 저술과 수행만을 힘쓴 것은 아니었다. 거사는 다양한 방생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경전을 판각해 널리 보급했으며, 수시로 반승(飯僧)과 사찰에 많은 보시를 하고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850무(畝; 1무는 약 200평)의 토지를 희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거사의 활동으로 그의 사촌동생인 팽축화(彭祝華)와 팽희속(彭希涑) 등 주변의 많은 친족들은 모두 불교에 귀의했다. 팽축화는 항상 거사를 시봉하면서 거사의 수행과 다양한 불사를 도왔는데, 거사는 임종시 그에게 후사를 부촉했다.

팽희속은 자가 낙원(樂園)이고, 호가 난대(蘭臺)로서 어려서 병으로 인해 팽제청 거사의 권유로 항상 염불을 일과로 삼았다. 팽제청 거사가 주굉 선사의 <왕생집>이 너무 간략함을 아쉬워 하다가 팽희속에게 보완할 것을 권하자 흔쾌히 승낙하고서 부인 고(顧)씨와 함께 밤을 새워가며 완성한 것이 바로 <정토현성록(淨土聖賢錄)> 9권이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팽희속은 <정토현성록>을 완성한 후에 건릉(乾陵) 58년(1793) 10월 13일에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정토현성록> 권2에는 그의 전기가 실려 있는데, 세상을 떠난 이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10월 13일 아침에 하인을 시켜 불상을 평상위에 서쪽을 향하게 모시고, 징곡 화상(澄谷和尙)을 청해 "힘드시겠지만, 저를 위해 염불해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저녁에 이르자 입으로 불명을 염송하며 오른쪽으로 누워 세상을 떠났는데, 기이한 향이 온 집안에 퍼졌다. 거사의 부인 고온옥(顧韞玉)은 어려서 시(詩)에 능했는데, 29세에 또한 병에 걸려 앓아서 염불하면서 세상을 떠났다. 이들 부부가 완성한 <정토현성록>은 이후 세상에 유행했다. 팽희속의 친한 벗이었으며 팽제청 거사에게 깊은 영향을 받았던 호연(胡延)은 팽희속이 세상을 떠나자 <정토현성록>(500인 수록)에서 누락된 정토관계 인물들을 추가해 <정토현성록속편(淨土聖賢錄續編)> 4권(175인 수록)을 저술했다.

근대에 양계초(梁啟超)는 <청대학술개론>에서 "건륭시기에 이르러 팽소승과 라유고가 불교에 독실하고 뜻을 두어 신앙했다"라고 하고, 공자진(龔自珍)과 위원(魏源)이 바로 팽제청 거사를 계승했다고 평가를 내렸다. 공자진과 위원은 모두 '공양학파(公羊學派)'에 속한 인물로서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다. 양계초의 이러한 평가는 바로 팽제청 거사가 중국불교의 맥을 근대로 잇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나타났다. 실제로 팽제청 거사는 쇠락해가는 청대불교에 새로운 중흥의 바람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이후 다양한 반향을 나타나 중국불교의 혜명이 다시금 살아나게 했다. 이러한 거사의 역할은 거사불교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중국불교사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